

#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HURCH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WEB WWW.OAKCC.ORG

주임신부 Fr. Dominic Kim 김도미니코(광근) (510) 562-3843 사무실 (510) 553-9434 Fax (510) 639-4842  
 사목회장 Lay council chair 게토마스(성일) (510) 589-3311 standrewoak@gmail.com  
 thmschae@yahoo.com 대건회관 (510) 562-8107

|       |          |                                  |              |                      |          |             |                    |
|-------|----------|----------------------------------|--------------|----------------------|----------|-------------|--------------------|
| 미사    | 주일 미사    | 오전 8:00 오전 11:00<br>영어미사 12시 30분 | 성사           | 고백 성사                | 미사 30분전  | 예비자<br>교리   | 주일 오전 9:30(106회의실) |
|       | 평일 미사    | 수,금,토 오전7:30 화,목 오후7:30          |              | 유아 세례                | 2주일 전 신청 |             |                    |
| 신심    | 성 시간     | 매월 첫 목요일 저녁 7시 30분               | 지속적인<br>성체조배 | 병자 성사<br>봉 성체        | 2주일 전 신청 | 통신교리 - 전화문의 |                    |
|       | 성령 기도회   | 매주 토요일 미사 후 (대건회관)               |              | 혼배 성사                | 3개월 전 신청 |             |                    |
|       | 향심 기도회   |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7회의실)             |              | 매월 첫 금 9 PM ~ 토 7 AM |          |             |                    |
|       | 하느님의 뜻영성 |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3회의실)             |              |                      |          |             |                    |
| 주일 학교 |          | 매주일 오전 11:00-12:15               | 한국학교         | 토요일 오전 9:40-12:50    |          |             |                    |



[제 1독서] 이사 2,1-5

[화답송] 시편 122(121),1-2.4-5.6-7.8-9(◎ 1 참조)

◎ 기뻐하며 주님의 집으로 가리라.

- “주님의 집에 가자!” 할 때, 나는 몹시 기뻐노라. 예루살렘아, 네 성문에 우리 발이 이미 서 있노라. ◎
- 그리로 지파들이 올라가네. 주님의 지파들이 올라가네. 이스라엘의 법을 따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네. 그곳에 심판의 왕좌, 다윗 집안의 왕좌가 놓여 있네. ◎
- 예루살렘의 평화를 빌어라. “너를 사랑하는 이들은 평안하리라. 너의 성안에 평화가 있으리라. 너의 궁 안에 평안이 있으리라.” ◎
- 나의 형제와 벗들을 위하여 비노라.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주 우리 하느님의 집을 위하여, 너의 행복을 나는 기원하리라. ◎

[제 2독서] 로마 13,11-14ㄱ

[복음 환호송] 시편 85(84),8

◎ 알렐루야.

-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는 복되어라! ◎

[복 음] 마태 24,37-44

|    |        |       |           |            |       |
|----|--------|-------|-----------|------------|-------|
| 성가 | 8시 미사  | 입당 88 | 봉헌 91 221 | 성체 154 178 | 파견 89 |
|    | 11시 미사 | 입당 88 | 봉헌 91 221 | 성체 154 178 | 파견 89 |

## 주일 전례 봉사

| 구분     | 대림 제 1주일(12월 1일) |          | 대림 제 2주일(12월 8일) |          | 대림 제 3주일(12월 15일) |           |
|--------|------------------|----------|------------------|----------|-------------------|-----------|
|        | 8시               | 교중미사     | 8시               | 교중미사     | 8시                | 교중미사      |
| 미사해설   | 김글라라(순희)         | 조레지나(선덕) | 이바로(명국)          | 황테레사(혜정) | 임루카(승원)           | 전베로니카(진영) |
| 제 1 독서 | 이바로(명국)          | 이베드로(기만) | 강요한(신호)          | 심미카엘(태규) | 최분도(환준)           | 정요한(석준)   |
| 제 2 독서 | 정스텔라(애리)         | 이골롬바(정연) | 김안젤라(영선)         | 심헬레나(승화) | 최분다(수영)           | 손리디아(정옥)  |
| 보편지향기도 | 독서자              |          | 독서자              |          | 독서자               |           |

오늘의 강론

깨어 있어라.

시간은 돌고 돌아서 또 다시 대림시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대림’ (待臨)이란 라틴말 ‘아드벤투스’ (Adventus)를 번역한 말인데, ‘오시기를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오실 분은 물론 예수님이시며, 그분은 이천 년 전에 이미 이 세상에 오셨지만 매년 그분의 탄생을 되풀이하여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분께서 이루신 구원의 신비를 기억하고 새롭게 재현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올해 대림 시기에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데,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열망하며 기다렸던 바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림은 종말에 있을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그 가운데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따라 온갖 무질서와 애착에 빠져서 현실적인 행복만을 추구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염원하는 우리는 항상 깨어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대낮에 행동하듯이 품위 있게 살아가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1독서에서 이사야 예언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고, 야곱의 하느님 집으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분께서 당신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시어, 우리가 그분의 길을 걷게 되기 때문이며, 이는 시온에서 가르침이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성당에 나오고 미사에 정성껏 참여하고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며,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야 하는 까닭은 그것이 바로 깨어서 준비하는 삶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림시기에는 우리 모두 주님의 오심을 깨어서 준비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립시다. 또한 열린 마음과 사랑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는 분명 아주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독서와 복음은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는 삶을 살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복음에서는 노아의 홍수 사건을 예로 들면서 “홍수 이전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가 닥쳐 모두 휩쓸어갈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사람의 아들의 재림도 그러할 것이므로 깨어 있으라.” (마태 24,38-42)고 엄중히 경고하고 있으며, 제2독서에서는 “밤이 물러가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어둠의 행실을 벗어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대낮에 행동하듯이, 품위 있게 살아가며, 흥청대는 술잔치와 만취, 음탕과 방탕, 다툼과 시기 속에 살지 말고, 그 대신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 (로마 13,12-14)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2013년 신앙생활 지침**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루카 19,5)**

그러나 말이 쉽지 “깨어서 준비하는 삶, 어둠의

생명의 말씀

깨어 있어라!

12월에는 모임이 많습니다. 한 해를 잘 정리해서 보내자는 송년회, 그동안의 근심 걱정을 다 떨쳐버리자는 망년회 자리가 빈번하지요. 신앙인들에게 12월은 무엇을 보내고 떨쳐버리기보다는, 누구를 기다리고 맞이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 누구란 매해 새롭게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시름거리를 떨쳐버리려는 사람은 술에 취하기 십상이지만, 예수님을 맞이하려는 신앙인은 깨어있어야 합니다. 이미 2천 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십니다. 하지만 세상 살아가 바쁘고 힘들다 보니 가까이 계신 주님을 알아 뵙지 못하고 살아가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 전 4주간의 대림절 동안에 마음과 정신을 주님께 향하게 하는 ‘집중적인 훈련’을 합니다. 이렇게 깨어 준비할 때 2천 년 전에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서도 태어나십니다.

그분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는 때가 바로 진정한 성탄의 날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거울에 비친 모습처럼 어렵 못하게’ 주님을 만나지만, 저세상에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듯’ 만나게 될 것입니다.(1코린 13, 12 참조)

죽은 후에 이루어지는 이 최종적인 만남을 위해서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만남의 순간이 언제 닥쳐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깨어 있어라.” 하고 경고합니다.

우리가 죽음의 문을 통과하면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온 생애에 대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비롭게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 앞에서 내 한평생의 공로와 과실이 낱알이 드러날 것입니다. 공로가 많으면 안도의 한숨을 내쉬겠지만, 과실이 더 많으면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을 것입니다.

집회서의 말씀대로 이런 심판의 순간을 잊지 않을 때 현재의 삶에 좀 더 성실할 수 있습니다. “모든 언행에서 너의 마지막 때를 생각하여라. 그러면 결코 죄를 짓지 않으리라.” (집회 7,36)

이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빛의 갑옷’을 입고 ‘대낮에 행동하듯이, 품위 있게’ 살려고 노력하고 ‘흥청대는 술잔치와 만취, 음탕과 방탕, 다툼과 시기 속에’ 살지 않으려고 애쓰게 됩니다.(제2독서)

누구나 죽은 후에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지나면 주님과 모든 백성이 함께하는 잔치가 우리를 기다립니다. 정의와 사랑의 주님이 이 잔치의 주인이시기에, 모든 불의가 사라지고 전쟁이 완전히 사라져서 평화가 넘치는 잔치(제1독서), 사랑이 충만한 자리가 됩니다.

주님을 뵙고, 그분의 천상잔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갈망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기를 기원합니다. 이 갈망의 힘으로 세상 것에 마음을 빼기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믿고, 그분께 희망을 두며, 그분을 닮아 사랑의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천상잔치에는 우리를 아끼는 수많은 친지들이 기다리고 있고, 부모와 형제와 자녀들이 우리를 애타게 만나려고 할 것입니다. 주님이 보내신 잔치 초대장은 이미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12월의 성인/성녀

고르곤리아, 골롬바, 다니엘, 도미니코, 라자로 루포, 루치아, 루치오, 막시모, 바르바라, 바울리나, 발레리아, 보니파시오, 사비노, 실베스테르 1세, 스테파노, 스페르디나, 아나스타시아, 암브로시오, 이스카리온, 요한, 크리스티나, 파비올라,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후안 디에고

\* 성 요한 디다쿠스(후안디에고)

성 요한 디다쿠스(Joannes Didacus, 또는 요한 디다코, 후안 디에고)는 세례를 받은 후 날이 갈수록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중 프란치스코 수도원 성당의 미사에 참례하기 위해 테페약(Tepeyac) 산을 넘고 있었다. 갑자기 찬란한 빛을 내는 구름 속에서 한 귀부인이 나타나 성 요한 디다쿠스를 불렀다. 그때 그 귀부인은 자신이 은총을 가득히 입은 하느님의 영원한 동정녀 마리아임을 밝히면서 그 장소에 성당을 세우라는 메시지를 주교에게 알려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 말을 전해들은 멕시코의 초대주교인 후안 데 수마라가(Juan de Zumarraga)는 그를 믿지 않았다. 성모님께서는 징표로서 테페약 산 정상에 올라가서 장미를 주워 주교에게 보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때는 12월이라 추웠고 또 돌이 많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불가능하게 느껴졌다. 그러나 그가 산 정상에 가니 과연 장미꽃들이 있었고 이를 틸마(Tilma, 외투 또는 보자기로 쓰이는 겉옷, 망토)에 담아 주교에게 내보였다. 그 귀부인은 스스로 ‘과달루페(Guadalupe)의 영원하신 동정 마리아’로 불리기를 원하였고, 그 성화는 테페약 산 정상에 세워진 성당에 모셔졌다. ‘과달루페’는 ‘뱀을 부순 여인’이라는 뜻이다.

그 후 성 요한 디다쿠스는 성모를 찾아오는 순례자들에게 성화를 보여주면서 성모님의 발현 과정과 의미를 설명하였다. 매일 수천 명씩 개종하더니 마침내 발현 후 8년 만에 인신 제사에 빠져 있던 멕시코인 900만 명이 세례를 받고 가톨릭 신자가 되었다.

성 요한 디다쿠스는 1990년 4월 9일 교요한 바오로 2세(Joannes Paulus II)에 의해 복자품에 올랐고 그해 5월 6일 멕시코시티에서 시복 승인 기념식이 열렸다. 이어서 그는 2002년 7월 31일 멕시코 과달루페의 동정 마리아 대성당에서 같은 교황으로부터 성인품을 받았다.

손희송 베네딕토 신부  
서울대교구 사목국장

말씀의 향기

돌봐주시는 하느님

어릴 적에 할머니께서 가끔 점을 보고 오시곤 했습니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이셨는데도 미래에 대한 불안은 어쩔 수 없으셨나 봅니다. 그런데 할머니께서 단골로 가시는 점집은 독특하게 자신의 예견을 언제까지라고 기한을 두며 이야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오시면 매일 같이 “너 오늘 물가에 가지 마라.”, “할머니가 닭고기 튀겨 줄 테니까 네발 달린 짐승 고기로 만든 소시지 같은 거 사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며, 점쟁이가 제시한 기한이 다 될 때까지 노심초사하셨습니다.

점쟁이가 한 말대로 “앞으로 한 달 남았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우리 용만이가 물가에 가지 않도록 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의 기도를 하시면서 말입니다.

저는 허황된 소리를 하는 점쟁이를 찾아가 혼을 낼까도 생각했지만 그것보다는 할머니의 마음을 바꾸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할머니께서 점쟁이에게 들은 이야기를 하면 저는 그걸 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다음 달 중순까지 물가에 가지 말라고 하면 바로 그날 수영장으로 달려갔고 네발 달린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면 바로 햄버거를 사 먹으며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두 달 동안 절대 문지방을 밟지 말아야 다음 시험을 잘 본다.” 라는 말을 들은 날은 문지방에 누워서 한 시간을 버틴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방식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시험을 잘 보려고 몇 날 밤을 새우며 고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기겁을 하던 할머니께서 그 덕에 오히려 점쟁이가 말한 기간 동안 마음 편하게 지내셨지요. “할머니야말로 하느님이 혼내 실거야. 점쟁이 말이나 믿고!” 라고 하면 할머니는 “그래 난 하느님이 혼내지만, 넌 내가 혼내야겠다.” 라고 하시며 저를 쫓아다니셨습니다. “그래도 오늘 아무 일도 없었으니까 두 달 동안 아무 일 없을 거잖아.” 라고 하면 한 편으론 안심하는 표정이셨습니다.

이런 것도 효도의 한 방법인가 싶기는 했지만, 아무튼 저의 그러한 행동 덕에 할머니께서 마음의 평화를 찾으셨고, 점집 출입을 현저히 줄이셨으니 할머니 신앙에 제가 한몫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제가 대학에 합격하고 난 후에 할머니께서 성당에

다녀오시더니 “하느님이 이렇게 다 돌봐주실 텐데 내가 미쳤지. 그 점쟁이한테 갖다 준 돈만도 얼마야.” 라고 하시더군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회사를 경영하는 일도 요즘같이 격변하는 시대에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이나 우려가 늘 가슴 한구석에 있습니다.

사업가로서 가지는 당연한 스트레스의 원인이기도 하지요. 이렇게 크고 작은 불안이 마음에 생겨 앞일이 궁금할 때 저는 조용히 기도를 합니다.

“하느님, 제 앞날의 일을 다 알고 계시지요? 따로 여쭙보지 않고 그냥 하던 대로 열심히 살면 되는 거지요?”

박용만 실바노  
(주)두산 회장

12월 교황님의 기도지향

일반 : 피해 아동

온갖 폭력에 희생될 당하거나 버림받는 어린이들이 필요한 사랑과 보호를 받도록 기도합니다.

선교 : 구세주를 맞이할 준비

그리스도인들이 강생하신 말씀의 빛을 받아 온 인류와 함께 구세주를 맞이하도록 기도합니다.

가톨릭전례

“기도란 무엇이며, 기도는 왜 해야만 하나요?”

인생은 수많은 만남으로 가득 찹니다. 만남은 자연스레 대화로 이어지고, 서로가 나누는 대화의 깊이에 따라 새로운 관계가 형성됩니다. 관계를 통해서 좋은 일, 때로는 달갑지 않은 불편한 일들이 삶 속에서 건너오기도 합니다.

잘못된 만남은 불행의 씨앗을 키워가지만, 좋은 만남은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영혼을 기쁨에 젖어들게 합니다. 우리의 행복은 좋은 만남에 있습니다. 그리고 만남에는 상대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장 행복하게 해 주는 만남은 어떤 것 일까요?

우리를 빚으시어 이 세상에 보내 주신 하느님 아버지와의 만남보다 더 값진 것은 없습니다. 그분과의 만남은 우리의 근본적인 고민을 해결해 주고 참 기쁨을 가져옵니다.

하느님과의 만남은 기도으로써 가능하며 그분과의 대화가 기도입니다. 우리는 허공 속에 사라져가는 자신의 말을 너무 많이 합니다. 기도는 ‘주님, 들으십시오. 당신 종이 말합니다.’의 태도가 아니라, “주님,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1사무 3,9)의 자세입니다.

하느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부르십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느님을 잊거나, 멀리 도망치더라도 살아계신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를 기도의 신비로운 만남으로 끊임없이 부르십니다.

기도는 그분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응답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 각자의 삶에 대한 완벽하고 멋진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의 뜻을 알고 실천할 때 우리의 삶은 밝게 빛나고 행복할 것입니다.

기도는 하느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기로 결정하는 마음의 귀 기울임이 기도의 본질적 요소이며, 말은 부수적인 요소입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2570항)

그러면 어떻게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하느님은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얼굴을 맞대고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각자의 양심, 자연, 이웃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 주어지는 하느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기 위해서는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혀야 합니다. 하늘의 달빛은 잔잔하고 거울 같은 호수 위에 잘 비칩니다.

마음은 우리가 존재하고 머무는 곳입니다.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는 숨겨진 중심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은 우리가 삶이나 죽음을 선택하는 결단을 내리는 곳, 바로 진리의 자리입니다. “기도는 하느님을 향하여 마음을 들어 높이는 것입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2559항)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보지만 하느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완전한 단계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눈이 땅을 적시어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양식을 주듯이, 하느님의 말씀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사명을 완수하는 힘입니다.(이사 55,10-11 참조)

그러므로 우리의 행복은 하느님 말씀에 있으며 우리의 힘은 기도에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문명이 발달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자꾸 높아지는 세속적인 가치와 화려한 세상의 외모에 방황도 목적도 잃어버린 채 달려가기만 합니다. 우리는 이 혼돈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하느님의 샘에서 지혜를 퍼 올리는 두레박입니다. 고요한 마음으로 하느님과 만나는 기도는 영혼의 무한한 기쁨이며, 인생의 모든 고난의 파고를 넘어가는 원동력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1테살 5,17-18)

※ 참고: 「가톨릭교회교리서」 2558-2660항

서울대교구 사목국 연구실

**- 성 정아상 바오로 트리아벨리 안인선주교의 -**

**주임신부 Fr. Thaddeus Kim 김타데오(선류) (925) 600-0188/사무실 (925) 600-0177**

Pleasanton Middle School, Multi-Purpose Room

5001 Case Ave. Pleasanton, CA 94566

◆ 미사 안내 : 매주 주일 아침 9시/수 & 토요일 아침 9시 30분, 목요일 저녁 8시

지난주 우리의 정성

< 주일 헌금과 참여인원 >

| 구분     | 8시    | 11시     | 영어미사 | 합계      |
|--------|-------|---------|------|---------|
| 미사참석인원 | 80    | 221     | 34   | 335     |
| 헌 금    | \$565 | \$1,308 | \$52 | \$1,925 |

< 교무금 > \$4,800

배영옥(1-12) 박인준(1-12) 최은용(10-11) 서춘애(12)  
이기만(1-12) 이건용(12) 임승원(10-12) 김영희(12)  
이순열(11-12)

< 성소후원금 >

김세록(1-12)

< Bishop's Appeal > -

< 감사헌금 > 익명 \$200

< 대림초/꽃 > 서춘애 \$300

< 2차 헌금 > \$754

< 지붕공사 & 소방설비 공사 헌금>

\* 목표액 \$48,000

\* 총 약정 \$55,550

\* 총 납입 \$54,950

< 건축헌금 > 목표액 \$300,000

\* 약정액 \$311,515.28(186 세대 약정)

\* 봉헌액 \$292,345.28

| 날짜       | 연 | 지 향         | 봉 헌 자       |
|----------|---|-------------|-------------|
| 12월 1일 일 | 연 | 김중화         | 정데레사(해경)    |
|          | 연 | 이성원         | 정데레사(해경)    |
|          | 연 | 정벤자민(대업)    | 정데레사(해경)    |
|          | 연 | 이마르코(재상)    | 가족          |
|          | 연 | 윤바오로(광의)    | 가족          |
|          | 연 | 박마리아(희원)    | 가족          |
|          | 연 | 부모님         | 신마태오(현규)    |
|          | 연 | 송성용         | 가족          |
|          | 연 | 민경문         | 민제노베파       |
|          | 생 | 전안드레아       | 전데레사        |
|          | 생 | 김다윗(승우)     | 한수산나        |
|          | 생 | 이정우         | 전수산나        |
| 12월 3일 화 | 연 | 최베드로(취종)    | 가족          |
|          | 연 | 위령들의 영원한안식  | 사도들의 모후 Pr. |
|          | 생 | 김F.하비에르(두희) | 김아네스(순이)    |
|          | 생 | 김말찌나 축일     | 김카타리나       |
| 12월 4일 수 | 생 | 김데레사(승희) 생일 | 박헬레나        |
| 12월 5일 목 | 연 | 본당선종연령들     | 선종봉사회       |
| 12월 6일 금 | 연 | 메체도안토니오/린   | 서데레사        |
| 12월 7일 토 | 연 | 메체도안토니오/린   | 서데레사        |
|          | 연 | 서라이문도       | 서데레사        |
|          | 생 | 꾸리아 활성화     | 꾸리아         |
|          | 생 | 이베로니카(경란)   | 전레성가대       |

~~~~ 오늘의 간식은 김덕명 요셉/아네스 댁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

2013년 신앙생활 지침 :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루카 19,5)

- 공 제 사 항 -

- ◆ 여행자를 위한 안수기도 : 오늘 미사 중
- ◆ 전례안내  
12월 5일(목) : 성시간  
12월 7일(토) : 성모신심미사(꾸리아월례회)
- ◆ 지속적인 성체조배  
12월 6일(금) 저녁 9시부터 12월 7일(토) 아침 7시까지
- ◆ 2차 헌금 안내  
12월 8일(다음주) Religious Retirement
- ◆ 성탄 및 송년 전례 안내  
12월 24일(화) 저녁 8시 성탄 성야 미사  
12월 25일(수) 오전 11시 성탄 미사  
12월 31일(화) 저녁 8시 송년 감사 미사  
1월 1일(수) 오전 11시 천주의 성모마리아 대축일미사 - 의무축일\*  
\* 25일, 1일 수요일 아침미사는 없습니다.
- ◆ 대림절 성경 쓰기 : 시편 71장 - 150장  
(12월 24일 성탄전야 미사 때 봉헌해 주십시오.)
- ◆ 성탄판공성사  
매 미사 전에 성사표를 작성하시어 판공성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 합동판공성사 : 12월 12일(목) 저녁미사 후  
- 영어로 성사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정운석 요한 신부님께 성사를 보시면 됩니다.
- ◆ 대림피정 안내  
일시 : 12월 10일(화) 오후 7:30 - 10:00  
12월 11일(수) 오후 7:30 - 10:00  
\*\*\*\*\* 수요일 아침 미사 없습니다.\*\*\*\*\*  
주제 : "가까이 계시는 하느님"  
강의 : 신은근 바오로 신부님  
준비물 : 성경, 필기도구 \*참가비 : 무료(간식 제공)  
문의 : 영성부장 707-696-7743
- ◆ 성탄봉성체  
일시 : 12월 20일(금) 오후 - 사무실로 신청해 주십시오.
- ◆ 대림초/성탄 제대꽃 봉헌을 하실 분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십시오.
- ◆ 성탄 구역별 장기자랑 및 성가경연대회  
일시 : 12월 25일 성탄 미사 후  
\* 경품잔치에 사용될 선물(\$20 상당)을 도네이션 받고 있습니다.  
\* 당일 판매하는 라플 판매 이익금은 불우이웃돕기에 사용됩니다.

| 11월 구역모임 테살로니카 1-2장 |               |          |
|---------------------|---------------|----------|
| 4 구역                | 12월14일(토) 6시반 | 이주황 요한 맥 |

- ◆ 올해의 교우상 후보자 추천  
수상 내역 : 추천서 참조  
시상 : 12월 25일 성탄대축일 미사 중  
접수 : 12월 15일까지 사무실에 제출  
문의 : 영성부장 707-696-7743
- ◆ 모임  
\* 뜨락회(청년모임) : 매주 교중미사 후 201호실  
\* 요아킴회/안나회 : 12월 8일 교중미사 후 친교실  
\* 본당 ME 모임 : 12월 8일 교중미사 후 107호실
- ◆ 오바마 케어 설명회  
일시 : 12월 1일(오늘) 8시 미사 후, 교중미사 후  
\* 질의 응답 후, 신청서 작성을 도와드립니다.
- ◆ 북가주 제 25차 ME 첫주말 공지  
일정 : 2014년 1월 24일 - 1월 26일까지(2박 3일)  
장소 : Hilton Garden Inn, Hayward CA  
문의 : 한요셉 415-810-3175/한헬레나 925-285-2038
- ◆ 대림절 맞이 성물방 20% 세일  
성물방 이익금은 빈첸시오 후원에 사용됩니다.
- ◆ 각 단체장들께서는 2013년 결산 및 행사보고서와 2014년 예산서를 작성하시어 12월 22일까지 총무에게 제출하여 주십시오.
- ◆ 오글랜드 교구청 산하 가톨릭 장례 서비스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지 구입 20% 할인 행사가 12월까지입니다. 할인 성당에서 100기를 약정했는데 현재 20기만 예약이 된 상태입니다. 교우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문의 : 카니김 510-234-2012
- ◆ 권글라라 자매님께서 배데레사 자매님 생일을 축하하며 장학회에 \$100을 봉헌해 주셨습니다.

| 주일학교 소식           |
|-------------------|
| - 오늘 합동미사/주일학교 휴강 |

| 안국학교 소식                                               |
|-------------------------------------------------------|
| - 12월 7일 : 방학식/한국 전통 물건 소개하기<br>북가주 협의회 주최 '교사 사은의 밤' |
| - 12월 14일 ~ 12월 28일 : 겨울 방학                           |
| - 2014년 1월 4일 : 개학                                    |